

나주시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 속도 낸다

전남도·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 공동 주관 시민 보고회 담양~목포 133km 구간 현황·문제점·기본 조성계획 발표

담양에서부터 광주와 나주, 무안을 거쳐 목포 하구원까지 총 133km의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영강동 어울림센터에서 전남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사업 시민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전남도에서 착수한 '영산강 자전거길 조성계획' 용역 추진상황 중간 점검을 겸해 자전거 동호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시민보고회에는 운병태 나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김호진·이재태·최명수 도의원, 지역 시의원과 자전거 동호회원,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 발표를 맡은 지식산업경영연구소 노현재 박사는 5개 시·군을 연결하는 영산강 자전거길 구간별 현황에 따른 문제점, 조성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노 박사는 자전거길 현황에 따른 문제점으로 '레저 및 여가 중심이 이용자 접근성 한계', '안전 시설 및 이용자 통행 편의성 확보 미흡', '관리주체 다원화로 인한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 필요', '차량·도보·자전거 이용자 혼용으로 안전 및 쾌적성 저해', '자전거 거점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조성 기본 방향으로 '영산강 자전거길 노후 인프라 개선', '지역 자원 연계 및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지속성에 기반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조성전략과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및 자전거 거점센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총 133km의 영산강국토중주자전거길에 포함된 나주시 자전거 길은 총 43km 구간이다.

나주시는 자전거 도로의 단절구간 연결, 노후도로 정비, 자전거 거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생활권을 조성하고 자전거 길을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운병태 나주시장 등이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사업 시민보고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시는 지난 5월 환경부에서 공모한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20억원을 확보, 산포배수장·지석천변길 등 3개 구간 자전거길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6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토중주 자전거길 정비'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 올 하반기 문평천-영산강 합류 지점 자전거길 단절구간을 연결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전거 수리·점검, 이용자 편의시설을 갖춘 자전거 거점센터는 영산강 나주지구 통합하천(천수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간선도로 단절구간 연결과 노후도로 정비, 지류 하천과 주변 문화·관광 자원 연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염원이자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마중물이 될 삼백리 자전거길 조성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여름 보양식 '강진 회춘탕' 밀키트로 즐기세요

21일까지 '초록민음' 물서 한정 판매...내달부터 네이버 쇼핑 출시

강진군이 대표 먹거리인 '회춘탕' (回春湯)을 복날 맞이 간편식(밀키트·사진)으로 내놓았다.

강진군은 21일까지 이틀간 회춘탕 밀키트 50개를 초록민음 강진군 직거래지원센터 온라인몰(gangjin.center)에서 한정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진 회춘탕 밀키트는 1인용(개당 1만5000원)으로 포장됐다.

이번 선착순 50개 한정 판매를 시작으로 다음 달 네이버 쇼핑 등에서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간편식 개발은 작전면 황금들 식육식당이 맡았다. 이곳은 강진 대표 먹거리인 회춘탕을 지난 2014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13년 회춘탕 상품을 개발했

으며, 이달 현재 10개 음식점이 회춘탕을 선보이고 있다.

회춘탕은 간 기능 회복과 당뇨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엄나무를 비롯해 헛개나무, 느릅나무, 당귀, 가시오가피, 쑥, 뽕나무 등 11가지 한약재를 사용해 육수를 만들었다. 춘담과 국내산 문어, 전복이 들어가 기력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 회춘탕 밀키트는 1시간 이상 푹 끓여내야 하는 음식을 간편하게 접하도록 1차 조리를 한 1인용 상품으로 거듭났다.

강진군은 지난해 8월 회춘탕 인증업소, 한정식 전문식당주들과 간담회를 열어 회춘탕 간편식 개발을 추진했다.

개발 용역 계약을 맺은 뒤 사업대상자 선정 등



1년의 세월이 들었다.

강진군은 병영 돼지 불고기와 버섯탕수 등 강진 10대 먹거리 간편식을 개발하고 취급 업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에 오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밀키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캔·페트병 회수로봇' 장성군 특별교부세 7500만원 확보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2건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확보했다.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은 우수한 정부혁신 성과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사업과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로봇 설치사업 등 전남에서 유일하게 2건이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 있는 시간을 표시하는 장

치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로봇은 사용한 캔이나 페트병을 자판기 형태 회수로봇에 넣으면 자동으로 라벨과 내용물을 제거해 재활용하고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친환경기기다.

장성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연구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군, 가족 사진 촬영 지원

장흥군이 지역 사진관과 협업해 12가정의 가족 사진을 찍어 전달했다.

가족사진 촬영에 참여한 가정은 장흥군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12가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19일 사진을 찍은 12가정에 가족사진을 전달했다.

장흥군은 지역 사진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촬영 비용 일부를 후원받았다.

이번 가족사진 전달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성(앞줄 오른쪽 세번째) 장흥군수가 지난 19일 12가정에 가족사진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가족 유대감을 높이고 어린이의 성장 모습을 담기 위해 가족사진 촬영을 추진했다.

장흥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맞춤 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가족 간에 대화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동복지 체계를 잘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